

## 우리대학에서 국제 암세포 유전자 치료 학회 열린다

바이오 신약 개발 국제적 교류의 장 마련해

최연재 cwj960914@naver.com

<http://www.hanyang.ac.kr/surl/qq2B>

URL 복사  

최근 전통적인 화합물 의약품에서 바이오 신약으로 의약계의 연구동향이 변화하고 있다. 화합물 의약품은 분자의 화학적 구조 연구를 통해 개발하고, 바이오 신약은 세포와 유전자 등의 연구를 통해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실제로 바이오 신약 시장은 전세계에서 6번째로 매출액이 큰 시장을 이루고 있으며 향후 바이오 신약 대상 질환의 범위가 늘어나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춰 지난 14일부터 3일간 우리대학에선 국제 암세포 유전자 치료 학회(이하 ISCGT)의 심포지엄이 열렸다.

### 국내에서 최초로 개최된 ISCGT 심포지엄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선 학계의 연구와 제약 회사의 제품화 노력, 임상시험 단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검증 등 여러 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 때문에 ISCGT에선 바이오 신약 개발과 관련된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세포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를 연구한다. 매해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 연구성과와 의약계 연구동향을 발표하고 토론의 장을 열기도 한다. 윤채욱 교수(생명공학과)는 2006년부터 국내 유일의 ISCGT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ISCGT 심포지엄의 책임자 역할을 맡아 연사 초청을 비롯한 행사 전반을 준비했다.

지난 14일 경영대학 SKT홀엔 세계 각국에서 온 연사들이 모였다. 일본 유전자치료학회장 카네다 야스후미(Kaneda Yasufumi), 영국 유전자치료학회장 레너드 시모어(Leonard W.Seymour),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자문역할을 하는 앨버트 다이스로스(Albert Deisseroth) 등 ISCGT의 주요인사들이 자리했다. 이외에도 국내외 의약계 전문가와 의약회사 관계자, 학생 등 400여명에 달하는 청중이 모였다. 특히 미국에서 최초로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해 상용화한 엠젠(Emgen)의 관계자가 자리해 이목을 끌었다.

첫날 오전 9시 이영무 총장과 공과대학장 김용수 교수(원자력공학과)의 환영사로 심포지엄이 막을 올렸다. 이후엔 초청된 ISCGT의 회원들과 국내외 연구자들의 발표가 있었다. 이들은 최신의 연구결과와 신약 개발과정을 발표했다. 또한 임상시험을 마친 의약품에 경우 임상시험의 과정도 소개했다. 발표자와 청중의 토론시간이 주어지기도 했다. 매 발표마다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고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더욱 확장된 논의를 펼쳤다. 이후 기업들 간의 미팅이 이뤄지며 일부 기업의 경우 보다 긴밀한 협조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사의 발표 및 토론이 이어졌고 행사의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연사들간의 만남의 자리가 있었다.



▲ 공과대학장 김용수 교수(원자력공학과)가 환영사를 전하고 있다. (출처: 윤채욱 교수)



▲ 세계 각국에서 온 연사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틀간 진행됐다. (출처: 윤채욱 교수)

#### 바이오 신약 개발의 가능성을 엿보다

윤 교수는 이번 심포지엄의 성과에 대해 “세포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의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제품이 상용화되는 등 연구의 가속화를 느낄 수 있었던 자리”라고 했다. “이전에 개최된 심포지엄의 발표에선 제품화된 사례가 많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학계에서의 기초연구 발표가 주를 이뤘죠. 하지만 올해에는 임상시험 중이거나 제품화된 사례의 발표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10종류 이상의 세포 치료제와 8종류 이상의 유전자 치료제가 승인 과정을 거쳐 출시된 상태다.

세계에 우리대학을 알린 것도 이번 행사의 성과 중 하나다. 우리대학은 전통적인 공학 분야에서의 인지도는 높지만 신약 개발과 관련된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다. “바이오 신약 분야에서 우리대학에 우수한 연구진과 우수한 연구 사례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전세계의 뛰어난 전문가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윤 교수는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최초의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등 바이오 신약 개발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가 까다로워 제품이 상용화되기까지는 다소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윤 교수는 “학계 연구는 활발히 진행돼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산업체에서 제품화시키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하지만 “국가에선 최근 이를 인지하고 바이오 신약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 연구 및 제품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발표자와 청중들 간의 토론이 이뤄지는 모습 (출처: 윤채옥 교수)

#### 암세포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한평생을 바치다

윤 교수는 20년 이상 줄곧 암과 관련된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힘써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도 ‘암 유전자 치료제의 전신투여를 통한 전이성 암 극복 방법’에 대한 윤 교수의 연구 발표가 연구 교수에 의해 대신 이뤄지기도 했다. “매우 오랜 시간 동안 한 분야의 연구에만 몰두했습니다. 현재는 기업과 협력해 공동연구도 진행하고 있죠.” 윤 교수는 “성공적인 연구 및 개발을 통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싶다”고 했다. 전세계의 바이오 신약 기술 진보에도, 윤 교수의 개인적 바람에도 이번 심포지엄은 의미가 큰 행사였다.



▲ 심포지엄에 참여한 ISCGT 회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출처: 윤채옥 교수)